
주요국 예산안 - 일본

2018. 2.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김우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정은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3
2. 예산기조	5
3. 예산안 내용	7
가. 세입	7
나. 세출	10
4. 주요 재정정책	14
가. 경제성장	14
나. 재정건전화	18

일본 개황

FY2018: 2018.4 ~ 2019.3

FY2018 예산편성 일지

- 2017.9.6. FY2018 각 부처의 개산요구
- 2017.12.8. FY2018 예산편성 기본방침 각의 결정
- 2017.12.22. FY2018 예산 정부안 각의결정
- 2018.1.28. FY2018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출처

- 平成30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7.12.8)
- 平成30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7.12.19)
- 平成29年度補正予算(第1号) (2017.12.22)
- 平成30年度予算政府案(2017.12.22.)
- 我が國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12.)
- 予算編成におけるP D C Aサイクルの取組み(2018.1.22)

환율: 100엔 = 약 1,008.52원 (2017년도 평균)

경제규모: 2016년 경상GDP 5조 3,595억 달러 추정(우리나라 약 2.9배 수준)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6년 기준 31.2%(우리나라 77.7%)

인구: 1억 2,680만명 (2016년 기준)

GDP 및 인구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등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 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2018년도 실질성장률은 1.8%, 명목GDP성장률은 2.5%로 전망
- (재정수지) 2018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10.4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18년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882.8조엔,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0.6%p 감소한 156.4%로 전망되며, 국채의존도는 전년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 예산기조

- 2018년 예산은 「경제·재정재생계획」 집중개혁 기간의 마지막연도 예산으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에 양립하는 예산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9조 790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18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엔으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인재육성 혁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생산성 혁명’을 비롯한 현재 중요 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
- (재정건전화) 일반세출과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국채발행액 6년 연속 감축,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개혁공정표’를 바탕으로 한 세출개혁 추진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8년도에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¹⁾’ 등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 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 전망
- (성장률) 2018년도 실질GDP성장률은 1.8%, 명목GDP성장률은 2.5%로 전망
 - 2018년도 일본경제는 해외경제 회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의 선순환이 더욱 진전되어 민간수요 중심으로 경기회복 전망
 - (민간최종소비지출)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에 의해 전년대비 1.4% 증가 전망
 - (민간주택투자) 완화적 금융환경에서 소폭 증가한 전년대비 0.6% 증가 전망
 - (민간설비투자) 생산 증가 및 기업 수익 개선 등에 의해 전년대비 3.9% 증가 전망
 - (공적수요) 실질 GDP 대비 공적수요 기여도는 사회보장관계비 증가 등에 의해 0.1% 증가 전망
 - (해외수요) 실질 GDP 대비 해외수요 기여도는 해외경제 회복 등에 의해 0.1% 증가 전망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종합)는 경기회복에 의해 수급이 상승세를 나타내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진전이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DP 디플레이터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여 전년대비 0.8% 증가할 전망
- (고용) 고용환경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 및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노동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자수는 전년대비 0.7% 증가한 5,877만명으로 전망되며, 완전실업률은 소폭 감소한 2.7%로 전망

1) 2017년 12월 8일 각의결정, 자세한 내용은 2017년 하반기 재정동향 일본편 참고

<표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대비 %, 조엔)

구분	2016	2017	2018	전년대비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6		2017		2018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조엔)	539.3	550.3	564.3	1.0	1.2	2.0	1.9	2.5	1.8
민간최종소비지출	300.5	305.2	311.5	-0.2	0.3	1.6	1.2	2.1	1.4
민간주택투자	17.0	17.5	17.9	5.9	6.2	3.0	1.1	2.2	0.6
민간설비투자	83.6	87.6	92.3	0.4	1.2	4.8	3.4	5.3	3.9
민간재고품증가(기여도)	-0.3	-0.2	0.7	(-0.3)	(-0.3)	(0.0)	(0.0)	(0.2)	(0.1)
재화·서비스수출	88.6	96.5	102.5	-3.4	3.4	9.0	4.8	6.2	4.0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83.3	92.3	97.9	-9.5	-1.1	10.8	3.3	6.1	3.4
내수기여도	/			-0.1	0.4	2.2	1.6	2.5	1.6
민간수요기여도				-0.1	0.3	1.7	1.3	2.2	1.5
공적수요기여도				0.1	0.1	0.5	0.3	0.2	0.1
외수기여도				1.1	0.8	-0.2	0.3	0.1	0.1
국민총소득	556.3	570.5	585.7	0.4	0.9	2.6	1.8	2.7	1.8
노동·고용 (만명)									
노동력인구	6,681	6,735	6,759	0.7		0.8		0.4	
취업자수	6,479	6,546	6,580	1.0		1.0		0.5	
고용자수	5,764	5,835	5,877	1.4		1.2		0.7	
완전실업률 (%)	3.0	2.8	2.7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1.1	4.7	2.7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율)	-2.3	2.6	2.3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0.1	0.7	1.1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2	0.2	0.8						
국제수지 (조엔)									
무역·서비스수지	4.4	2.8	3.3						
무역수지	5.8	3.7	3.1						
수출	70.7	77.4	82.8	-3.4	9.5		7.0		
수입	64.9	73.7	79.7	-10.9	13.6		8.2		
경상수지	20.4	21.4	22.8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	3.8	3.9	4.0						

자료: 내각부, 「平成30年度の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17.12.19.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2018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10.4조 엔을 나타낼 전망
 - (세입) 2018년도 조세 및 인지도입은 전년 예산안 대비 2.4% 증가한 59.1조엔, GDP 대비 비중은 10.5%로 전망되며, GDP 대비 세수 및 기타수입의 비중은 전년대비 0.2%p 하락한 11.3%로 전망
 - (세출) 2018년도 일반회계세출총액은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7조엔 (GDP 대비 17.3%)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대비 0.7% 증가한 74.4조엔(GDP 대비 13.2%)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18년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882.8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대비 0.6%p 감소한 156.4%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잔고는 전년대비 약 2%p 감소한 196% 규모로 전망

<표 2> FY2018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단위: 조엔, %)

구분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정부안)
일반세출 ²⁾	54.4	54.0	56.5	57.4	57.8	58.4	58.9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³⁾	68.4	70.4	72.6	72.9	73.1	73.9	74.4
GDP 대비 %	13.8	13.9	14.0	13.7	13.6	13.4	13.2
일반회계세출총액	90.3	92.6	95.9	96.3	96.7	97.5	97.7
GDP 대비 %	18.3	18.3	18.5	18.0	17.9	17.7	17.3
조세 및 인지수입 ⁴⁾	42.3	43.1	50.0 (4.5)	54.5 (6.2)	57.6 (6.3)	57.7 (6.3)	59.1 (6.4)
GDP 대비 %	8.6	8.5	9.6	10.2	10.7	10.5	10.5
국채발행 수입	44.2	42.9	41.3	36.9	34.4	34.4	33.7
국채잔고	705.0	743.9	774.1	805.4	830.6	863.9	882.8
GDP 대비 %	142.6	146.6	149.3	150.9	154.0	157.0	156.4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931.9	971.8	1,000.6	1,032.7	1,056.1	1,087.1	1,107.4
GDP 대비 %	188	192	193	193	196	198	196
기초재정수지 ⁵⁾	-24.9	-23.2	-18.0	-13.4	-10.8	-10.8	-10.4
국채의존도(%) ⁶⁾	47.6	46.3	43.0	38.3	35.6	35.3	34.5

주: 1) 당초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는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괄호안의 수치는 소비세인상(5%→8%)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의미(국세부분)

5) 일반회계기초재정수지=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6)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12.22.

2. 예산기조

□ FY2018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17.12.8.)²⁾

- 2018년 예산편성은 구조개혁과 더불어 금융정책과 성장 지향적 재정정책의 조화를 추진
 - 재정건전화달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고 '육아 안심 플랜'을 바탕으로 한 보육시설 정비 등 '인재육성 혁명' 추진,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한 기업 설비 및 인재에 대한 강력한 투자, 연구개발·이노베이션 촉진 등 중요한 정책 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 등 신축성 있는 예산 편성
-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³⁾에 따라 일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동일본대지진, 구마모토대지진을 비롯한 각지의 재해로부터 부흥 및 방재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경제·재정재생계획」⁴⁾에 포함된 세출계획 등을 착실히 실행하고, '개혁공정표'를 바탕으로 한 세출개혁 추진 노력을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
- 예산편성에 있어 일본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출전반에 걸쳐 성역 없는 철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지방에서도 국가의 노력과 기조에 맞게 철저한 재검토를 진행
-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도록 정책효과가 부족한 세출을 철저하게 삭감하고 정책효과가 높은 세출로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이노베이

2) 내각부, 「平成30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7.12.8.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7/30_yosanhensei.pdf

3) 2015년 9월 아베내각이 발표한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이 활약할 수 있는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명목GDP 600조엔 달성), 꿈을 이루는 육아지원(희망출생률 1.8% 실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개호(간병)인력 이직 제도 실현)을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함. 1억 총 활약사회는 50년 후에도 일본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1구 1억 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

4) 2015년 6월 30일 각의결정.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경제·재정 재생계획」을 통해 경제 및 재정의 일체적인 개혁을 실시. '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의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며, 계획의 초기 3년인 2016~2018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지정

선' 중심으로 세출개혁을 착실하게 추진

- 행정사업 리뷰 등을 통한 각 부처의 세출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가시화'의 철저한 시행 및 확대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개
- PDCA사이클⁶⁾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표 및 분석의 오픈데이터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한 통계 등의 조기공표 노력
- 경제·재정일체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혁공정표'에 따른 모든 개혁의 진행상황을 검증

□ FY2018 예산의 주요 내용 (2017.12.22.)⁷⁾

- 2018년 예산은 「경제·재정재생계획」 집중개혁 기간의 마지막연도 예산으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에 양립하는 예산
- (인재육성 혁명) 백세인생시대를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세대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
 - 보육시설 확대
 - 보육교사 및 간호 인력 처우개선
 - 유아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급부형 장학금 확충
- (생산성 혁명)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디플레이션의 탈출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지역의 핵심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인재 투자 촉진

5) 경제·재정 일체 개혁을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수요·공급과 관계하여 ①관계주체·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여 차이를 알 수 있고, ②행정 운영개선 및 성과의 유무·정도를 알 수 있고, ③개혁 과제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세 개의 '알 수 있다'를 연결하는 '가시화'를 추진

6)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이클은 Plan(정책기획입안, 성과목표 설정)→Do(정책시행)→Check(행정사업 리뷰·정책평가)→Action(예산요구)을 의미

7)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8/seifuan30/01.pdf

일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보고서

-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세제상 조치 실시 등 세제조치 시행
- 산학관(産學官) 연계 연구개발 등을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중점화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진행
 - 일반세출과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 2016~2018년도 3년간 각각 1.6조엔, 1.5조엔 인상
 - 아베내각 출범 이후 국채발행액을 6년 연속 감축
 - 2017년도 34.4조엔→2018년도 33.7조엔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 2017년도 - 10.8조엔→2018년도 - 10.4조엔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8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으로 전망
 - (조세 및 인지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9조 79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의 비중은 10.5%로 전망
 - 원천소득세(5.7%), 신고소득세(7.2%), 상속세(5.9%), 소비세(2.5%), 자동차중량세(6.8%), 관세(7.2%) 등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법인세(-1.8%), 담배세(-5.9%) 등이 감소,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⁸⁾ 신설

8) 2018년도 세제개정안(2017.12.22. 각의결정)에서는 의 국제여행관광객 등(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1951년 정령 제 319호)에 의해 출국 확인을 받고 본국에서 출국한 관광객 등을 의미,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제외)은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의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 국제선박 등(본국과 외국 사이에 관광객 등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항공기(공용선박 및 공용항공기 제외)를 의미)에 의해 본국에서 출국 시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이 부과되며, 세율은 출국 1회당 1,000엔으로 함.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4조 9,416억엔으로 전망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33조 6,922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채의존도도 전년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표 3> FY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 억엔, %)

구 분		FY2017 당초	FY2018 정부안	증감액	증감율(%)
세 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77,120	590,790	13,670	2.4
	2. 기타 수입	53,729	49,416	-4,313	-8.0
	3. 국채발행액	343,698	336,922	-6,776	-2.0
	(1) 공채금(건설국채)	60,970	60,940	-30	0.0
	(2) 특례공채금(적자국채)	282,728	275,982	-6,746	-2.4
	합계	974,547	977,128	2,581	0.3
세 출	1. 국채비 ²⁾	235,285	233,020	-2,265	-1.0
	2.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739,262	744,108	4,846	0.7
	(1) 일반세출	583,591	588,958	5,367	0.9
	사회보장관계비	324,735	329,732	4,997	1.5
	사회보장관계비 외	258,856	259,226	370	0.1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³⁾	155,671	155,150	-521	-0.3
	합계	974,547	977,128	2,581	0.3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국채비는 국채의 상환 및 이자지불을 위한 경비로, 국채잔고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비

3)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표 4> FY2018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7		FY2018	전년대비			
	예산 (당초)	결산전망	예산안	예산 (당초)		결산전망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48,740	153,100	157,250	8,510	5.7	4,150	2.8
신고소득세	30,740	32,650	32,950	2,210	7.2	300	1.0
(소득세 계)	(179,480)	(185,750)	(190,200)	(10,720)	6.0	(4,450)	2.5
법인세	123,910	116,770	121,670	-2,240	-1.8	4,900	4.0
상속세	21,150	22,390	22,400	1,250	5.9	10	0.0
소비세	171,380	171,220	175,580	4,200	2.5	4,360	2.5
주 세	13,110	13,130	13,110	0	0.0	-20	-0.2
담배세	9,290	8,750	8,740	-550	-5.9	-10	-0.1
휘발유세	23,940	23,700	23,300	-640	-2.7	-400	-1.7
석유가스세	80	80	80	0	0.0	0	0.0
항공기연료세	520	530	520	0	0.0	-10	-1.9
석유석탄세	6,880	7,140	7,090	210	3.1	-50	-0.7
전원개발촉진세	3,130	3,230	3,230	100	3.2	0	0.0
자동차중량세	3,700	3,830	3,950	250	6.8	120	3.2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	-	-	60	60	-	60	-
관 세	9,530	10,130	10,220	690	7.2	90	0.9
톤 세 ¹⁾	100	100	100	0	0.0	0	0.0
인지수입	10,920	10,530	10,540	-380	-3.5	10	0.1
합 계	577,120	577,280	590,790	13,670	2.4	13,510	2.3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톤당 16엔을 세금으로 납부
 자료 : 재무성, 「平成30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7.12.22.

나. 세출

- FY2018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 예산안 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엔으로 편성
 - (국채비)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비용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0% 감소한 23조 3,020억엔을 편성
 - (일반세출) 전년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엔을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대비 0.3% 감소한 15조 5,150억엔을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하며,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총액에 대해 2017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확보
- FY2018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33.7%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경제·재정 재생계획」의 사회보장관계비 인상 기준(2016~2018년도 3년간 1.5조엔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4,997억엔(1.5%) 증가한 32조 9,732억엔 규모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6.1%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조 9,789억엔 규모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5%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5조 3,646억엔으로 편성,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1조 3,159억엔 규모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3%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5조 1,911억엔 규모
 - 중기방위대상경비 392억엔(0.8%) 증액,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미군재편경비 등 268억엔 증액

<표 5> FY2018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분	FY2017	FY2018	증감액	증감률
	(A)	(B)	(B-A)	(%)
국채비	235,285	233,020	-2,265	-1.0
일반세출 ²⁾	583,591	588,958	5,367	0.9
사회보장관계비	324,735	329,732	4,997	1.5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67	53,646	79	0.1
(과학기술진흥비)	(13,045)	(13,159)	114	0.9
연금관계비 ³⁾	2,947	2,504	-443	-15.0
방위관계비	51,251	51,911	660	1.3
공공사업관계비	59,763	59,789	26	0.0
경제협력비	5,110	5,089	-21	-0.4
중소기업대책비	1,810	1,771	-39	-2.2
에너지대책비	9,635	9,186	-448	-4.7
식품안정공급관계비	10,174	9,924	-250	-2.5
기타 경비	61,098	61,904	806	1.3
예비비	3,500	3,500	-	-
지방교부세교부금	155,671	155,150	-521	-0.3
합계	974,547	977,128	2,58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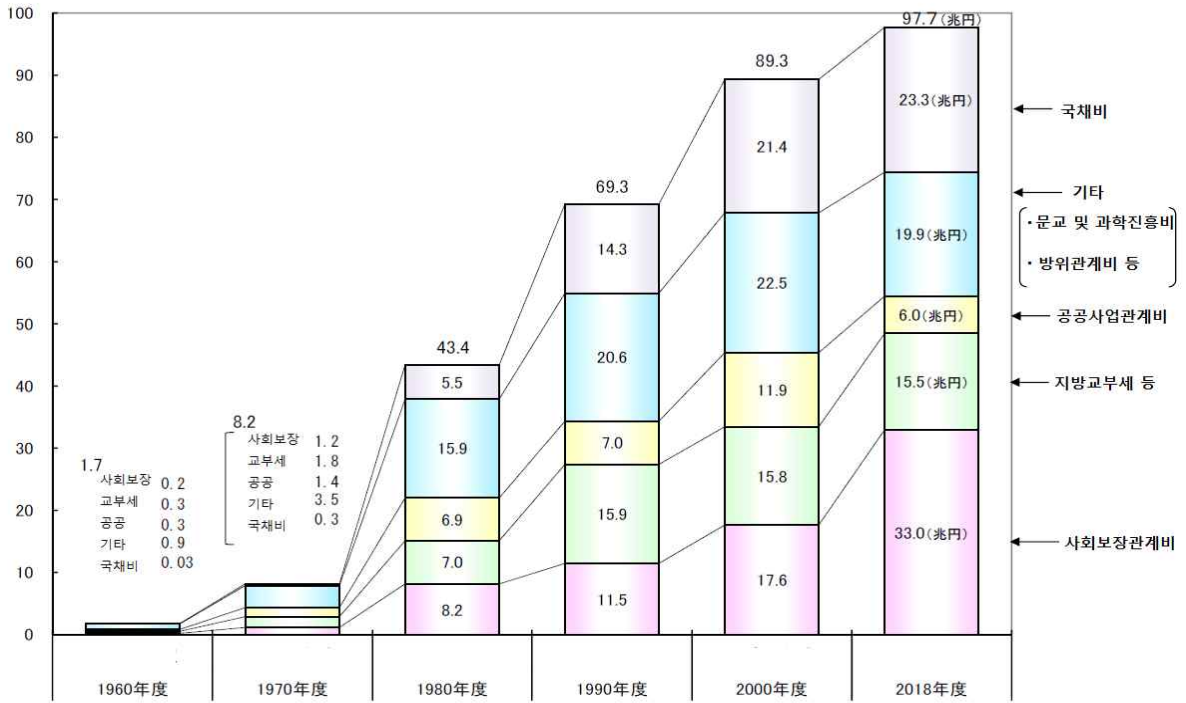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과거 군인 등이 공무를 위해 사망한 경우, 공무 중 상해 및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상당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대해, 당사자와 유족의 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상을 기본으로 하는 연금제도(恩給)관련 비용을 의미. 공무원 연금제도는 1955년 구 공제연금으로 전환되어 연금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구 공제연금 출범 이전 퇴직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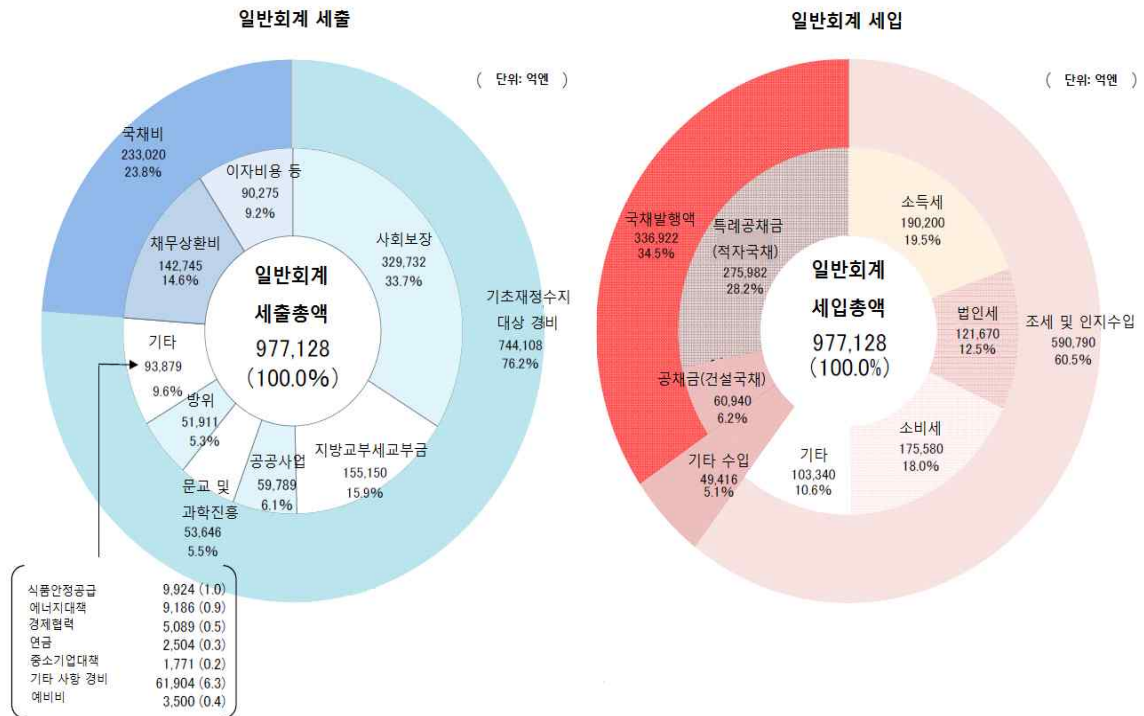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그림 1] 일반회계세출 주요경비 추이



주: 2000년도까지는 결산, 2018년도는 예산안
 자료: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12.22.

[그림 2]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의 구성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참고 1> FY2017 추경예산

- 일본정부는 건설공채 추가발행 등을 재원으로, 2.7조엔 규모의 추가세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2017.12.22.)⁹⁾
 - (생산성 혁명·인재육성 혁명) 생산성 혁명 관련 정책을 위해 3,931억엔, 인재육성 혁명 관련 정책을 위해 891억엔 등 총 4,822억엔 편성
 - (재해복구 등·방재·감재 사업) 재해복구 등 정책에 3,436억엔, 방재·감재 사업 관련 정책에 9,131억엔 등 총 1조 2,567억엔 편성
 - (종합적인 TPP¹⁰⁾ 등 관련 정책 실현) 농업농촌 정비사업 984억엔, 농산물산지 지원 사업 447억엔, 축산 클러스터 사업 575억엔 등 총 3,465억엔 편성
 - (기타 긴급한 과제 등에 대응) 국민생활 안전·안심 확보 관련 정책에 3,064억엔, 국제기구출연금 등 기타 정책에 3,154억엔 등 총 6,219억엔 편성

<FY2017 일반회계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 억엔)

세 출		세 입	
1. 추가 세출	27,073	1. 공채금(건설국채)	11,848
(1) 생산성 혁명·인재육성 혁명	4,822	2. 세외수입	956
(2) 재해복구 등·방재·감재 사업	12,567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3,743
(3)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실현	3,465		
(4) 기타 긴급한 과제 등에 대응	6,219		
2.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로 편입 (전년도 잉여금의 1/2) ²⁾	1,891		
3. 기존경비 감액	-12,416		
(1) 국채비	-10,098		
(2) 기타	-2,318		
합 계	16,548	합 계	16,548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재정법 제 6조 1항에 따라 잉여금의 1/2 이상의 금액을 발생한 연도의 내후년도까지 국채정리기금에 편입

자료: 재무성, 「平成29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第1号) フレーム」, 2017.12.22.

9) 재무성, 「平成29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第1号)」, 2017.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hosei1222.htm

자세한 내용은 2018년 1월 제1호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2018년 예산안의 주요정책

- 2018년도 예산에서는 지금까지의 세출개혁 노력을 강화하면서, '인재육성 혁명' 과 '생산성 혁명'을 비롯한 현재의 중요 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
- (인재육성 혁명) 백세인생시대를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세대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
 - 보육시설 확대
 -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¹¹⁾에 근거하여 '보육 안심 플랜'을 2년 앞당겨 달성(2020년까지 +32만명)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11만명을 추가 수용(소요예산 +1,152억엔, 소요예산 중 사업주 각출금 993억엔)
 - * 보육소 등 시설정비 : 2017년도 추경 808억엔, 2018년도 예산(당초) 888억엔
 - 보육교사 및 개호(간병) 인력 처우개선
 - 인사원(人事院) 권고에 따라 보육교사 임금 인상(+1.1%),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 따라 보육교사 임금을 2019년 4월부터 추가 1%(월 3,000엔) 인상하고 2019년 10월부터 약 1,000억엔을 투자하여 개호(간병)인력의 처우를 개선
 - 유아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 따라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2019년 4월부터 일부 실시하고 2020년 4월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330억엔 지원(새로운 자녀·육아지원제도¹²⁾ 전환분 포함)

10)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11) 내각부, 「新しい経済政策パッケージについて」
http://www5.cao.go.jp/keizai1/package/20171208_package.pdf
2017년도 하반기 재정동향 참조

12) 새로운 자녀·육아지원제도(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移行分) : 유아기의 교육 및 보육, 지역 육아 지원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제도로 2015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비

- 급부형 장학금 확충
 - 상환 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에 대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주민세비과세 세대 중 사립대학의 자택외 통학자 한정'에서 '주민세비과세 세대'로 대상을 확대(105억엔, 2017년도 0.3만명→2018년도 2.3만명)
 - 무이자 장학금에 대해 2017년도에 이어 저소득 세대의 성적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958억엔, 대상자 4.4만명 확대)
 -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 따라 저소득층 고등교육 무상화를 2020년 4월부터 시행
- (생산성 혁명)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디플레이션의 탈출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지역의 핵심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인재 투자 촉진
 - 지역 핵심기업 설비투자 촉진(162억엔),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조치 확충(21억엔)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 시행
 -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세제상 조치 실시
 - 충분한 임금인상과 설비투자를 시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승계세제의 근본적인 확충, 자사 주식을 이용한 구조조정(M&A)에 대한 과세이연 등 세제조치 시행
 - 산학관(産學官) 연계 연구개발 등을 지원
 - Society5.0¹³⁾ 실현을 위해 고효율·고속처리 AI 칩의 산학관 연계 연구개발(100억엔), 양자(量子)컴퓨터 등 빛·양자기술 연구개발(22억엔), 나노기술·재료분야의 오픈플랫폼 형성(19억엔) 등, 이노베이션 촉진

세월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 주요내용은 인정보육원(교육·보육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지원,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등을 통한 일·육아 양립 지원 사업 등 시행.

- 13) 사이버공간(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현상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결하는 인간 중심 사회. 수렵 사회 (Society 1.0) 농경 사회 (Society 2.0), 산업 사회 (Society 3.0), 정보 사회 (Society 4.0)에 이은 새로운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 5 기 과학 기술 기본 계획에서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으로 처음 제창.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중점화
 - 3개 대도시권 순환도로 등 정비 가속(2,283억엔), LNG 병커링 거점 형성(7억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해 인프라 정비 중점화를 추진

□ 2018년도 예산의 각 세출분야별 특징

○ 사회보장

- 진료보수개정 : 본체(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의 공정가격) +0.55%(+588억엔), 약가 -1.36%(-1,456억엔), 재료가격 -0.09%(-99억엔)
-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310억엔) 및 대형문전(門前)약국 등의 조제보수 적정화(-56억엔) 등 제도개혁 실시
- 개호(간병)보수개정 : +0.54%(137억엔),
- 장애복지서비스 등 보수 개정 : +0.47(+57억엔)
- 공공부조 기준 재검토 및 의료보조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의 대학 등 진학 시 일시금 지급을 시행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자녀 학습 지원 등을 강화

○ 교육·문화

- 새로운 학습지도요령¹⁴⁾의 원활한 시행 및 학교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소학교 영어 전문 교원 등 학교의 지도·사무체제를 강화
- 문화예술번영을 위해 문화청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면서, 문화자원 활용 및 투자 확대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경제 전략¹⁵⁾ 등을 추진

14)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자질·능력을 확실하게 육성하고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을 중시,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식 이해를 향상시키고 확실한 학력을 육성, 도덕교육 충실, 체험활동 중시, 체육 및 건강 지도 충실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육성을 기본으로 함. 주요 내용은 언어능력 육성, 이과교육 충실, 전통 및 문화에 대한 교육 충실, 도덕교육 충실, 체험 활동 충실, 외국어 교육 충실 등

15) 문화와 산업·관광 다른 분야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 문화 예술의 보존·계승, 새로운 창조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재투자를 통해 자립적·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매커니즘 형성을 목적으로 책정.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활용, 문화창조 활동 추진, 국제적 지위 향상, 주변지역으로의 파급, 새로운 수요·부가가치 창출, 문화경제전략 추진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공사업

- 공공사업관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5조 9,789억엔)하고, 공공사업관계비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호우·태풍 재해 등을 감안한 방재·감재 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

○ 농업

- 쌀 직접지불교부금 폐지에 맞추어 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 활용 교부금과 농업·농촌 정비 사업을 증액하고 수입보험을 창설
- '2019년 수출 1조엔' 목표를 위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의 전략적 지원, 가공 시설 정비 및 목재 고부가가치화 등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

○ 외교·방위

- 외교체제 실시를 강화하고 미일·러일관계 강화 및 인도태평양전략¹⁶⁾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전략적 외교를 지원, ODA도 일반회계예산 규모 및 사업 수 모두 증가
- 중기방위관계비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전년 예산 대비 0.8% 증액하고, 이지스 아쇼아 (2기분)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등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투자 추진

○ 경찰·해상보안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테러 미연방지 등을 위한 보안향상 기자재 정비를 추진하고, 국경 주변 낙도 등 경비용 대형 헬리콥터(2대) 등을 조치
- 「해상보안체제강화에 관한 방침」에 의거하여 2017년도 추경예산과 함께 센카쿠(尖閣) 대응 대형 순시선을 중심으로 체제 강화를 지속

16)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두 개의 대양(태평양, 인도양)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교정책. 2018년 예산안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적·물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화를 추진.

○ 관광

- 2020년도 방일외국인 여행자수 4000만명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국제관광여행객세(가칭) 재원을 활용하여 얼굴인증 게이트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CIQ체제(출입국관리, 세관) 정비,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마케팅 도입, 문화재 및 국립공원 등에 다국어해설 정비 등을 추진

○ 지역 창출

- 첨단과학 및 관광·농업 등 지방대학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부금을 창설하고, 지방의 자주적이고 선구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지역창출추진교부금을 계속해서 확보

○ 부흥

- 부흥 단계에 따라 생업의 재개 등 세심한 지원과 함께 부흥거점정비 및 루머로 인한 피해 대책 등 후쿠시마의 부흥을 추진

○ 지방재정

- 지방재정에 대해 세출특별기준 폐지에 의한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지방소비세 청산 기준 재검토 등에 의해 국가(중앙)·지방을 통한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 지방 일반재원총액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

나. 재정건전화

□ 「개혁공정표」(2017개정판)의 개요

- 「개혁공정표」에서는 「경제·재정재생계획」기간(2016~2020년도)의 개혁의 방향성과 검토·실시 시기 등을 명확화
- 사회보장
 - 국민부담 경감 등의 관점에서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신약개발 등 가산의

근본적 재검토, 장기등재품목의 약가 재검토 등)을 착실하게 실시

- 2018년도 개호(간병)보수개정에 대해,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방문개호(간병)를 실시하는 경우 인원기준 완화와 이에 따른 보수 설정 및 통원치료 등 기타 급부의 적정화 시행
- 2017년도 공공부조 기준 검증에 맞추어 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공공부조 기준 재검토, 후발의약품 사용 원칙화와 같은 의료부조 적정화 추진 등)를 시행
-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시 '선택요양'17)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재검토 하고, 내년 말까지 주치의 외 의사에게 진료 시 정액 부담 도입을 포함한 외래진료 시 정액부담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검토

○ 사회자본 정비 등

- 2018년도 예산에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하수도의 공공적인 역할·성격을 감안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보급 해소 및 빗물대책 중점화를 도모
- 신기술·신공법 활용 등 건설생산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의한 각종 기술의 최적화, 사회구현모델 검토 및 검증 등을 추진

○ 지방행정 및 재정 개혁

- 지방교부세의 톨러너 방식18)에 대해 창구업무의 위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2019년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검토
- 지방공공단체 기금에 대한 사고방식, 증감의 이유, 향후 방침을 포함한 각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에 관한 공표내용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 가시화를 촉진

○ 문교·과학기술

-
- 17) 특별한 병실의 제공 등 피보험자의 선택과 관련된 요양을 의미. 선택요양의 경우 요양 전체의 비용 중 기초적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며, 특별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자기 부담. 선택요양의 종류로는 특별 요양환경(차액추가 침대), 치과의 합금, 금속의치, 예약진료, 시간외진료, 대형병원 초진 및 재진, 소아 응치 지도관리, 180일 이상 입원, 제한횟수 초과 의료행위 등이 있음.
- 18) 지방교부세의 톨러너 방식은 교부세(정확히 말하면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비용에 대해 합리화(민간수탁 등)가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수준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

- 생애주기별 교육정책 전체의 PDCA 사이클 구축을 추진, 대학교육 질 및 성과의 가시화 등 대학개혁을 촉진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관민(官民)투자확대 이니셔티브를 구체화,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¹⁹에 대한 중점적인 시행 및 중복을 배제한 연구개발의 촉진

<참고 2> 2018년도 진료보수·약가 등 개정 및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1) 진료보수본체(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의 공정가격)

+ 0.55% (국비 + 588억엔)

각과별 개정률 : 의과 +0.63%/치과 +0.69%/조제 +0.19%

* 응급환자 관련 입원기본료 평가체계 재검토, 장기요양에 관한 입원기본료 평가체계 재검토 등 기능에 따른 적절한 평가를 시행

2) 약가 등 개정

① 약가 - 1.36% (국비 - 1,456억엔)

*약가제도개혁(3)참고) 효과를 포함한 영향은 -1.65%

② 재료 - 0.09% (국비 - 99억엔)

3)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국비 - 310억엔)

①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신약에 대해 시장시세에 따른 약가 인하를 유예하는 ‘신약개발·적응외약²⁰ 해소 등 촉진 가산’에 대해, 시장시세와의 괴리율이 전체등제품목의 가중평균괴리율을 넘지 않아야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대상품목을 의약품 자체의 혁신성·유용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

② 장기등제품목에 대한 의존에서 높은 신약개발 능력을 가진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후발의약품 출시 후 10년이 지난 장기등제품목의 약가에 대해 2018년도 이후 후발의약품 약가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③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시범적 실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가격 조정

19)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SIP) : 부처 및 기존 분야의 테두리를 넘어선 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중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에서 새롭게 창설하는 프로그램

4) 대형문전약국에 대한 평가 적정화 (국비 - 56억엔)

□ 2018년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이클 반영²¹⁾

○ 국회 의결·결산 검사 보고 등 반영

- 결산에 관한 국회의 의결에 대해 심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반영
 - 예) 정부공통플랫폼 운영경비 삭감 (반영금액 : -9억엔)
- 회계검사원 지적에 대해 개별 사무·사업별 필요성 및 효율성을 원점 재검토
 - 예) 사립대학 등 개혁 종합지원 사업에 대해 과다교부 금액을 국고에 납부,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 심사·확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정 학교 수를 수정하는 등 중점 배분을 실시 (반영금액 : 세입 0.5억엔, 세출 - 45억엔, 총 45.5억엔)
- 과다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예산의 내용 등을 엄격하게 재검토
 - 예) 보육대책사업경비보조금에 대해 사업별 집행상황을 바탕으로 시설 수 재검토 시행 등 적절하게 반영 (반영금액 : -177억엔)

○ 예산집행조사의 반영 (2018년도 예산 반영금액 : - 260억엔)

- 2017년도 예산집행조사에서는 조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2건의 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등의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고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
 - 예) LED조명도입 촉진사업 중 지역에서의 LED조명도입 촉진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조사의 지적을 바탕으로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 후

20) 일본 및 해외에서 승인·판매 되고 있지만, 적응증(어떠한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이 상이하여 일본에서는 일부 적응증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을 의미

21) 재무성, 「予算編成におけるP D C Aサイクルの取組み (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8.1.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8/seifuan30/27.pdf

2017년도를 끝으로 폐지를 결정 (환경성, 반영금액 : -11억엔)

○ 정책평가 결과의 반영 (2018년도 예산 반영금액 : - 783억엔)

- 각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정책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개별 사무사업의 효율성 검증을 시행하는 등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
 - 예) 연료전지 이용확대를 위한 에네팜(ene-farm, 가정용 연료전지) 도입비용 보조금에 대해 가격 절감 실적 및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조정(경제산업성, 반영금액 : -17억엔)